

# 저축은행, 3%대 금리로 하반기 대출 드라이브

정기예금 금리 상단 3.4% 기록  
리테일·중기대출 중심 확대 나서  
부실채권 정리·대손충당금 환입  
중저신용층 겨냥 대출 재개 채비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하반기 영업에 본격 나섰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2.97%다. 이달 초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상단을 살펴보면 0.15%p 상승한 연 3.40%다. 여전히 연 3% 중반대 정기예금을 찾아볼 수 있다.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영업 자금을 유인할 태세다.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영업 기조를 대출 규모 확대에 접목했다. ‘건전성 지표 개선’과 ‘수익성 확대’ 등 두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다. 리테일(소매금융)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규모를 키워 전반적인 연체채권비율을 낮추고 이자수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2년 기준금리 인상기 이후 움크렸던 저축은행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지난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9%로 집계됐다.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해당 시기 연체채권이 늘어난 것이 아닌 대출취급액이 감소한 영향인 만큼 여신규모를 확대해 연체 관련 지표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은 44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2년 만에 흑자인 만큼 수익성도 회복하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NPL(연체채권)을 처리했다. 올 상반기에만 공동펀드를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었다. 일각에선 건전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저축은행도 주담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주택 등을 담보로 사업비를 내주는 사업자대출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과 같은 성격의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 상품도 존재하지만 차주의 조건이 같더라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5%p 이상 높은 만큼 수요가 미미하다

는 설명이다.

하반기에는 신용점수가 낮은 직장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일으킬 전망이다. 확산 조짐은 불투명하지만 온투업체와의 연계 투자 등 사업경로도 다채로워졌다. 향후 주부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무서류 소액 신용대출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적합한 대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중저신용차주대상 리테일 감소와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했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존의 고객층을 되찾으면서 분위기를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 AI 음성 분석 기술로 고객 사칭 피해 차단

삼성생명은 30일 AI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객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AI 성문일치도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 중 동의 받은 고객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보이스피싱범 및 과거 녹취된 성문과 비교해 동일한 여부를 판단한다.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상 통화 등의 2차 인증 절차가 진행돼 고객을 사칭한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심 기술은 삼성생명이 독자 개발한 AI 음성 분석 엔진이다. 엔진은 말투, 억양, 발성 패턴 등 고객 음성의 고유 특징을 정밀 분석해 과거 목소리와 실시간으로 비교한다.

롯데손해보험

## 월 2000원대 보험료 DRIVE 운전자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월 2000원대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담은 ‘DRIVE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항목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가입 금액을 7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원, 교통사고 대인사고 벌금(비탐승중 포함) 3000만원, 대물사고 벌금 500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등 총 5개 보장을 담았다.

‘가성비 플랜’(13개 보장)에 20개 보장 항목을 추가해 ‘완벽보장 플랜’(총 32개 보장)도 마련했다. 주요 추가 담보로는 창상봉합술 30만원, 보복운전 피해위로금 100만원, 골절전반반(치아과 절제외) 20만원 등으로 구성했다.

교보생명

##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교보e연금저축보험

교보생명은 30일 디지털에 익숙한 2040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보e연금저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환급률이 세전 100%를 넘어 한 달만 유지해도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공제된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주형기자 gh471@

## 분상제 단지, 실속 설계엔 ‘합격점’… 분양가는 ‘글썄’

### 부동산 현장 르포

####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중대형 단지, 설계·커뮤니티 호평  
분양·대중교통 접근성은 아쉬움

최근 방문한 ‘오퍼스 한강 스위첸’ 건 본주택. 김포 한강변 입지와 중대형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란 희소성 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은 “설계가 실용적이고 유닛 구성이 괜찮다”는 반응과 함께 “분상제가 적용됐지만 체감할 만큼 저렴하진 않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 84·99㎡ 총 1029가구 규모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전 세대에 남향 위주의 배치와 맞통풍 구조가 적용됐고, 알파룸·대면형 주방·분리형 욕실 등 특화 설계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유상옥션을 활용해 알파룸 벽을 철거하면 거실·안



‘오퍼스 한강 스위첸’ 건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방 등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에 맞춘 중대형 평형 구성과 차별화된 설계가 특징”이라며 “거실과 주방, 알파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시설은 물론, 뮤직존·미디어존 등 문화시설과 독서 공간인 ‘스위첸라이브러리’, 주민·키즈카페인 ‘스위첸 라운지’도 조성된다.

개방형 광장인 ‘스위첸 스퀘어’ 등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문객들은 “단지 내부 평면은 잘 빠졌고 커뮤니티도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통 여건은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왔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앞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이 입주 시점에 개통될지 여부는 미지수고, 현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기자가 시공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버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 투자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입지 공고화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Lippo Group(리포그룹)’이 보유한 ‘No bu Bank(노부은행)’ 지분 40%에 투자해 경영권을 포함한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5월 리포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본격 진출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

게 됐다.

한화생명은 디지털 금융 기술력과 노부은행의 현지 오프라인 영업 전략을 결합한다. 3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리테일 금융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리포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모바일 중심의 금융 플랫폼 고도화, 방카슈랑스 시너지 확대, 현지 특화 상품 개발 등 종합금융 비즈니스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신한銀 창립 43주년 기념 ‘컬처위크’ 행사

2500여명 플로깅·감사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컬처위크(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 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

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